

# 제11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

일시: 2012년 12월 12일 (수)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 제11회 송건호언론상

## 한홍구 · 뉴스타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제 11회 송건호언론상’의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자 한홍구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 그리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했고 2000년부터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01년 1월부터 5년에 걸쳐 주간지 <한겨레21>에 연재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가 호평을 받으며 역사학자로서는 드물게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게 된 수상자는 이 연재물을 <대한민국사 1~4>로 묶어 펴냈고, 이어 <한홍구의 현대사 특강 1~2> 등 다양한 출판물과 강연 활동을 통해 현대사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모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라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불러내고 해석한 과거’라는 신념으로 사회 전방위에 걸쳐 여러 현안의 역사적 연원을 파헤치고, 사회문제와 병리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동안 수상자는 왜곡된 민족주의, 친일파 청산, 고문, 도청, 감시, 민간인 사찰, 한국전 당시 민간인 학살, 연좌제, 한미행정협정, 미군범죄, 사학문제, 간첩조작 사건, 토건국가,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 군대 내 인권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와 금기사항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다 얽히고 설킨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기에 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사회구성원들을 일깨워 왔습니다.

또, 수상자는 현실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동하는 ‘참여형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한국과 베트남 간에 진정으로 화해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모색했고, ‘평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고통·기억·연대’를 지향하며, 우리 사회에 ‘평화감수성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

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대체복무 시키는 것이 실용적이며 군대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5·16 군사반란 직후 부일장학회,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의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군사정권이 언론통제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상자는 이러한 강압적 언론정책이 언론의 독립성을 해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 왔다는 사실 또한 강조했습니다.

공동 수상자 ‘뉴스타파’는 ‘뉴스답지 않은 낡은 뉴스를 타파하고, 성역 없는 탐사 보도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죽어가는 저널리즘을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이명박 정권 시기에 해직된 언론인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인터넷 기반의 대안매체입니다.

2012년 1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뉴스타파’는 7월 1일 21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친 후, 8월 17일부터 ‘시즌2’를 재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큰 호응을 받으며 8월 중순 즈음에 ‘유튜브’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가 540여만 건, ‘팟캐스트’ 기준 내려받기가 590여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부족한 인력, 빈약한 장비,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사무실을 스튜디오 삼아 제작된 뉴스는 주류 언론에서 외면하고 회피한 4대강 사업 부실 의혹, 선관위 투표소 변경,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 콜트·콜텍 사태, 쌍용차 문제, 재능교육 노동자 해고, 삼성 반도체 직업병, 원전문제,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보도하여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여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했습니다.

7월부터 1만명을 목표로 후원회원을 모집 중인 ‘뉴스타파’는 미국의 비영리 온라인 언론사인 ‘프로 퍼블리카’를 모델로 삼아 탐사전문 독립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심사위원들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청암 선생이 남기신 뜻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봤습니다. 오늘날, 언론사와 언론인은 차고 넘치지만 치열한 보도정신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냉철한 이성으로 본질을 파악하고 불굴의 용기로 보도하는 매체와 기자를 찾기 힘들어 아쉬움이 큼니다. 심사위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이자 역사가가 되고자 했던 청암 선생의 올곧은 비판정신과 저항정신을, 한홍구 교수와 뉴스타파에서 발견

하고 이 상을 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은 '송건호언론상'이 두 수상자의 헌신과 실천에 대한 보답이 되리라 기대하며, 한홍구 교수가 이 시대의 지성으로 그리고 '뉴스타파'가 지속가능한 대안언론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에 이 상이 따뜻한 격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 제11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위 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 원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

위 원 김정탁 한국언론학회 회장

위 원 강상현 한국방송학회 회장

위 원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수상자 소개

# 한 홍 구

역사학자로서는 드물게 '스타 강사'이자 '인기 작가'인 한홍구 교수는 수상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시상식 참석이 가능한 지 일정부터 살필 정도로 바쁘게 산다. 강의, 강연, 집필, 기고, 토론, 인터뷰로 숨가쁜 그를 두고 절친한 소설가 서해성은 '현실에 반응하는 사학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어떤 이는 '혈기방장한 탓인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1959년 학술서적 전문출판사 '일조각'의 설립자 한만년 선생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책더미 속에서 성장하면서 점점 역사에 눈을 뒀고, 한국사를 전공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문을 독학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학자 청명 임창순 선생으로부터 <맹자>를 배웠다. 반년이 지나 한창 한학에 재미를 붙여갈 무렵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스승의 뜻으로 영문도 모르고 공부를 중단했다.

78년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입학, 79년에 국사학과에 배정된 후 같은 해 9월 '78학번 연합언더'에 유시민 등과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 유신체제의 억압 아래서 현실에 분노하던 대학생은 10·26사건 이후 역사의 격변기를 맞이했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80년 5월 광주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

'서울대 무림(霧林)사건'에 관련한 혐의로 81년 1월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강제입영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강제징집된 사병에 대한 특별정훈교육인 '녹화사업'이 시작되자 83년 2월 중순 사단 보안대에 끌려갔지만 말년인 덕분에 별다른 고초를 겪지 않고 3월 말 전역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다친다. 손 떼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사를 본격적으로 전공하였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개척자가 되어야 하는 척박한 연구 환경 아래서 '어디쯤에 누군가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리하고,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한다. 현대사 관련 스승을 찾기 힘든 시절, 여러 대학의 사학과 대학원생과 연구회를 구성하여 역사를 재해석하려고도 노력했다.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 현대사 자료총서 1~15>의 공동 편집자로서 1945~48년 사이 발행된 신문, 잡지, 단행본 등 좌우익, 중도 계열의 희귀 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또, 스칼라피노와 이정식 교수가 공동 집필한 '한국의 공산주의'를 번역하여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3>을 출판했고, 88년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절,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하여, 86년말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활동했고, 87년 1월부터 '민청련'의 지하기관지인 <민중신문> 기자로서 낮에는 도심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밤에는 기사를 작성하며 '6월 민주항쟁'의 현장을 지키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6월 항쟁'으로 <민중신문>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자 신문팀에서 정책실로 옮겼다가 다시 교육위원장으로 '민청련' 회원 교육을 맡았고, 88년 봄에는 '청년학교'를 개설하여 민족해방투쟁사를 강의했고 대학가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 "1980년 광주를 겪은 후에도 학생운동과 청년운동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겁 많고 조금은 비겁한 20대였다. 광주를 겪었으니 악랄한 학살정권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각오는 가져본 적이 없다."

89년 4월 '공안정국'을 피해 자료를 구하러 미국에 잠시 갔다가 미국 내 한국학의 개척자였던 워싱턴대 제임스 팔레 교수의 권유로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상처받은 민족주의 : 1930년대 간도에서의 민생단 사건과 김일성>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99년 귀국하여 인권잡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2000년부터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대사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이름을 알린 그는 별걸 다 기억하는 해박한 지식 때문에 '걸어 다니는 현대사 사전'이라고 불린다. 주로 기고, 강연 내용을 정리해서 펴낸 그의 책은 학자로서는 특이하게 구어체라서 그의 비판자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술술 잘 읽힌다. 명랑 생기 발랄한 그의 글과 막강한 입담 덕분에 선배들이 물러나는 자리를 대신해 떠오르는 '신진 구라'로 손꼽히기도 한다.

역사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그를 두고 한 언론인은 '신통한 학문적 성찰이나 내용은 없다'고 폄하했지만, 정작 본인은 사학자의 기본자세를 이렇게 생각한다.

"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보다 끈기 있게 앉아 자료를 읽어내는 궁둥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슴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느낀 고통,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사학자가 되겠습니까?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글들은 '역사에 대한 성찰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기득권에 집착해 도덕적으로

허약하면서도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기계적 중립성을 떠나 비판의식이 강한 자신의 저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읽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미운 놈을 미워할 줄 알고 산다’는 것이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에 대한 나의 공부와 글쓰기의 전략도 어떻게 하면 ‘미워해야 마땅할 자들’에 대해 ‘정당한 공분’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집행위원,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상임이사,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원폭2세피해자 김형률 추모사업회 회장,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역사를 여는 사람들 기억(ㄱ) 대표, 포럼 진실과 정의 운영위원,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게 지난 10년간 그의 삶이고, 그가 지향하는 바를 대변하고 있다.

사회 전방위에 걸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행동에 나서는 그를 설명하기에는 현대사학자라는 표현이 부족해서 ‘현재사학자’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과거에 일어나 일 자체라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불러내고 해석한 과거입니다. 저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해서 모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도서의 저자 목록, <역지와 위선>이라는 책이 지목한 좌파인물 15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뽑은 친북인사 100인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그는 자신이 유일한 ‘삼관왕’이라며 우스개처럼 말하지만,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구나. 싸워야 할 자리에 있었구나. 떠들어야 할 때 떠들었구나’하는 반증이라며 위안을 삼는다.

한 교수를 두고 ‘오지랖이 넓다’고 애정을 담아 놀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분명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이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일 것이다. 누군가 왜 그렇게 남다른 길을 가느냐고 그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길이 하나입니까? 길은 많습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 마음이죠. 길이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목적지가 흔들리죠. 목적지가 흔들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길은 결국엔 다 통해요. 선택이 어려운 건, 마음이 복잡하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래요.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그의 책은 찾는 사람이 많아 너털거리지만 누군가는 그의 사진에

붉은 펜으로 북북 칠을 해줬다.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학자 한홍구. 한국현대사 부문에서만큼은 벌써 원로사학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농담을 하는 그가 지난 여정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다. "한국 현대사는 일제의 강점,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의 역사가 아닌 희망의 역사이다."

세상사에 내 일처럼 나서는 그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넘어 스스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역사가로 평가될 것이다.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은 느낌도 가끔 듭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길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심을 간직하고 있으면 길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다니다 보면 가시밭에도 길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희망만큼은 놓아버리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 수상자 소개

## 뉴스타파

www.newstapa.com

심사위원회를 마친 후, 청암언론문화재단은 '뉴스타파'에 전화를 걸어 수상소식을 알리면서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뉴스타파에 참여한 노종면 앵커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와 이티엔' 지부장으로, 이근행 피디는 '문화방송 피디수첩' 소속으로서 이미 제7회 송건호언론상을 공동수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해직언론인으로서 험난한 길을 가는 그들의 수상을 축하하려면 축하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대의 역설이기도 하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기성언론에 비해 뉴스타파는 인력도 장비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부실수사를 하고도 신의 영역을 운운하는 검찰을 방치하고, 국제사기 행각을 오히려 홍보하는 언론현실을 직시하는 한 기성언론보다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롱 받는 뉴스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엠비씨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나섰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복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라는 인사말로 뉴스타파는 2012년 1월 27일 방송을 시작했다.

2011년 가을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저가의 방송장비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한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와 노종면·이근행 등 해직언론인 그리고 변상욱·김용진 등 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한 독립언론 프로젝트이다. 첫 회 약 90만이 뉴스타파를 시청하는 폭발적 호응을 얻은 이래 총 21회에 걸쳐 5,363,704건의 누적조회수를 기록하여 1일 평균 약 3만 명의 시청자가 찾는 돌풍을 일으켰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언론노조가 해직언론인, 그리고 뜻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타파 방송을 내보내려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MB정부에 장악돼 정권의 홍보방송이 돼버린 현실에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통해,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또한 YTN의 해직언론인 6명을 포함해, MB정부 들어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울골은 언론인들이 장비도 없고 예산도 없이 허름한 곳에서 마치 해적판을 만들 듯이 방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2012년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해직언론인들이 이제라도 각자의 현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투표소 변경 의혹, 4대강 세굴(토사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

가 강바닥이 움푹 파이는 현상) 및 누수현장, 강정해군기지의 국가공권력 남용, 민간인 불법 사찰, 삼성반도체 직업병, 콜트콜텍 해고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다뤘다.

지난 6월 30일 21회 방송을 기점으로 노종면 앵커가 YTN 노동조합으로 복귀하고 변상욱 앵커가 CBS 경영진에 임명되는 등 제작진의 변동이 발생했다. 또한 MBC 등 파업에 참여한 언론인들의 현장복귀로 인해 그들의 도움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7월 1일 21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친 후,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노동조합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취재인력을 보강하기는커녕 제작비도 지원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7월 6일 1만명을 목표로 정기회원을 모집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어 40여 일 동안의 준비 끝에 8월 17일, 뉴스타파 시즌2 (뉴스타파 22회부터)의 형식으로 방송을 재개하였다.

뉴스타파는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권력의 사안은 물론, 노동, 환경, 여성문제까지 각종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까지 확장해 우리 사회 곳곳의 모순과 불의를 생생하게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실의 전달을 넘어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권력과 차별에 맞서는 진실 추구'와 '성역 없는 취재'가 언론의 기본 사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10월 24일 '안중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 축사 -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언론계 원로 선배님들과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 청암 선생의 유족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는 '송건호언론상'은 언론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고 청암 송건호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암 선생은 한겨레신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언론의 정도를 깨끗하게 걸어온 청암 선생의 삶은, 한겨레 창간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청암 선생이 계셨기에 <한겨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참언론으로서의 든든한 믿음과 애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와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수상자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님,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님, 김정탁 한국언론학회장님, 강상현 한국방송학회장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님께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건호 선생님님은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동시에 한국 현대사 연구의 개척자로서도 소임을 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신 한홍구 교수님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사학자이십니다. 다양한 출판물과 강연 활동을 통해 현대사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분입니다. 또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동하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참여형 지식인입니다.

한 교수님은 그동안 친일파 청산, 한국전 민간인 학살, 연좌제, 미군범죄, 소수자 인권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힘써왔습니다. 어느 언론인 못지 않게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한 교수님은 송건호언론상의 수상자로서 그 어떤 분보다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수상기관인 '뉴스타파'는 언론노조와 해직 언론인, 현직 기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인터넷 독립언론입니다. 올 초 첫 방송을 시작한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4대강 개발 후유증과 강정 해군기지의 국가공권력 남용, 민간인 불법사찰과 삼성반도체 직업병 보도에 이르기까지, 주류 언론이 외면하고 회피해 온 사회적 이슈들을 끈질기게 파헤쳐 보도해왔습니다.

성역없는 탐사 보도로 참된 저널리즘을 복원하겠다는 뉴스타파의 목표는 권력과 자본에 맞선 한겨레 창간 정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방송의 누적 조회수는 수백만건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 안될 소금이자, 주류 보수언론에 당당히 맞선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도 진실 보도의 한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뉴스타파에 깊은 존경과 애정을 보냅니다.

청암 송건호 선생은 형극과 수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생애를 바쳐 '참언론인'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평생 모진 탄압을 견뎌내며 꿈꾸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수구언론과 보수권력은 종편이란 괴물을 탄생시킨데 이어, 수많은 언론인을 거리로 내몰아가며 방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언론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청암 선생께서 이런 언론과 역사의 퇴행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내년에 창간 25돌을 맞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다시 한번 창간 당시의 역사적 소명을 되새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한겨레신문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청암 선생의 올곧은 정신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며 바른 언론, 참 언론의 길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신 한홍구 교수님과 뉴스타파 제작진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소감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암언론문화재단으로부터 제11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것은 마침 한겨레에 연재하고 있는 <유신과 오늘>에 동아일보의 자유언론실천운동에 관한 원고를 막 써서 보내고 5분도 안되어서였습니다. 당시 편집국장이시던 송건호 선생께서 연행 당하신 일이며,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는 젊은 기자들을 잘라버리는 사주에게 눈물로 이러면 안 된다고 호소하시던 일 등을 막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 전화를 받고 보니 선생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더욱 뜻 깊게 다가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고, 유신쿠데타 이후 숨죽이고 있던 재야 인사와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1974년 말에서 1975년 초,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긴 방학을 즐기면서 동아일보에 쏟아지는 격려광고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 때였고, 세뱃돈을 털어 조그맣게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건호 선생님께서 보내신 <민족지성의 탐구>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역사를 재밌어했지만, 주로 조선시대 역사에 흥미를 느끼던 저를 일제시대 이후의 근현대사로 이끌어주신 것은 송건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올해는 언론환경이 어려워 힘들게 싸운 사람이 유난히 많았던 해입니다. 언론상이라면 당연히 단식투쟁까지 감행한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해고자가 된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겨레 최성진 기자, 그리고 파업 등 격렬한 투쟁을 벌인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언론노동자들 같은 분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염치없게 덩싹 이 상을 받은 것은 송건호 선생님 이름으로 주는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직접 뵈 적은 없지만, 늘 마음속으로 존경해온 스승이셨습니다.

한창 송건호 선생께서 쓰신 현대사 관련 글을 읽던 고등학생 때나 대학 초년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그 글은 그때 선생님께서 실직자로서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원고지를 매우시며 쓰신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딘가에 인터뷰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그 시절 “무직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처자를 거느리기가 한 없이 괴로웠다”면서 “생활에 대한 공포감으로 견딜 수 없었으며 미칠 것 같았다”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 하셨습니다. 어디선가 보니 “돼지갈비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리영희 선생님은 월부 책장사를 하시면서 그 시절을 버티셨습니다. <사상계>를 통해 전쟁의 폐허에서 방황하는 젊은 세대에게 지적 자양분을 공급해준 장준하 선생도 자식들 대학공부 시키지 못한 무능한 애비였습니다. 청암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칠 것 같은 괴로

움 속에서도 선생님께서는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에 70년대나 80년대보다 일제시대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글 속에는 역사에 대한 준엄함이 살아 있으면서도, 개개인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과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유신시대가 부활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2012년에 대학교수와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의 숫자는 유신시대에 비해 수십 배 늘어났습니다. MB정권 하에서 언론가 많이 막히고 민간인 사찰이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유신헌법을 고치자고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해서 군법회의에서 15년 징역을 때리던 유신시대의 핍박과 비교한다면 지식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수십 분의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과 무기력은 무엇 일까요? 트위터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들,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준하, 리영희, 송건호 같은 거룩한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언론인으로 현대사를 공부하게 되셨지만, 저는 현대사 연구가로서 선생님께서 초대 사장을 지내신 한겨레신문사가 펴내는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의 지면을 통해 많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실정치에 발을 담그실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병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몫쓸 병에 걸렸습니다. 언론활동과 역사연구는 공통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고, 역사가는 현재, 즉 '지금 이 순간, 여기'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과거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과거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까 고민하는 과정은 바로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과정이기에 언론활동과 뗄 수 없습니다. 좋은 언론인은 역사적 안목이 있어야 하고, 좋은 역사학자는 현실문제와 굳건히 결합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역사적 뿌리를 캐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사 연구와 언론활동은 늘 서로 침투해야 합니다.

유신시대는 해방 후 친일잔재청산이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양심세력이 친일파에게 오히려 역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나타난 시대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키워놓은 군국소년들이 중년과 장년이 되어 그 사회를 운영해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대사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진작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셨고, 십 수 년 노력했음에도 그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20여년이 지나 민주정권이 십년 간 들어섰음에도, 불행하게도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까딱하다간 유신의 부활이라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점에 상을 받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청암재단의 여러분들, 선생님 유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상 주신 것을 헤아려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소감 - 뉴스타파

올해 송건호 언론상의 수상자로 뉴스타파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날, 당연하게도 먼저 송건호 선생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1975년 긴급조치 1호와 2호에 따른 독재정권의 검열에 반대하고 언론자유를 지키려다 134명의 동아일보기자가 해직됐던 당시, 해직된 후배들을 따라 “本人 辭表 수리되다”라며 편집국장직을 내던졌고, 이후 언론자유 수호에 애쓰셨던 청암 송건호 선생, 그 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언론상에 뉴스타파가 선정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자유에 앞장서다 해직된 18명의 언론인과 정직 등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한 400여명의 동료 언론인들과 수상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해직 기자, 피디들이 중심이 돼 만든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우리 언론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해직된 언론인들과 함께 “이렇게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나눈 게 지난 2011년 가을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해 주류 언론이 권력에 의해 재갈이 물려진 현실에서 그저 한숨짓거나 개탄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용산상가에서 60만 원짜리 작은 캠코더 2대와 편집용 컴퓨터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성방송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장비였지만, 그 열악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12년 1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히 외면했던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국가폭력의 일상화된 현장을 고발했고, 온갖 욕설과 취재방해를 받으면서도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공사 현장을 취재해 26미터의 세굴현상과 보 내부 시설에서 균열 현상을 찾아내 보도하는 등 기성 언론이 외면한 진실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졌던 백혈병 등 직업병 논란, 민간인 불법 사찰의 과정을 추적했고, 콜트콜텍과 쌍용차,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등 우리사회 노동자의 현실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누적 조회수로 유튜브에서만 지금까지 700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돌이켜보니 뉴스타파가 시작한 지난해 이맘때보다 현재의 언론환경은 외려 더 악화된 듯 합니다.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의 보도 특히 대선보도 행태는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PR업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조롱도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하나의 실험으로 시작해, 10개월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인은 누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인지? 지난 1년 동안 뉴스타파의 탄생과 제작과정은 제작진 스스로에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사회적 맥락을 짚어내고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동료 기자 피디들에게도 그 물음을 던지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물음의 과정과 해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